

유민펠로우 결과보고서

2020년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Winter Cours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김학유



I. 들어가며

홍진기법률연구재단으로 2020년의 헤이그 아카데미(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1923년에 첫 수업이 열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국제법 발전에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저명한 기관이기도 하고, 다양한 국제기구가 소재해 있는 네덜란드의 헤이그 중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있는 평화궁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법이 실현되는 현장에 있다는 느낌이 들기에, 국제법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시간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미 깊었던 경험을 미숙한 형태로나마 결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민펠로우 이야기”로서 공유될 기록인데 어떠한 이야기가 적합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수강한 수업들 그리고 헤이그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될 유민펠로우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헤이그 아카데미에 앞서 유민펠로우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훌륭한 후기와 조언을 남겨주셨던 바 제 ‘기록’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싶은 염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참석한 헤이그 아카데미의 겨울 과정 (“Winter Course”)은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경쓸만한 몇몇의 차이들이 있는바, 앞으로 겨울과정을 참석하실 유민펠로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II. 헤이그에서의 생활

1) 숙소와 음식

헤이그 아카데미의 등록비에 숙소가 제공되지는 않기에 참석자가 스스로 숙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는 “Legal Lodging”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Legal Lodging”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숙소 형태는 ‘하숙’ (혹은 홈스테이)입니다. 집주인과 같이 생활을 하고,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숙이다 보니 모든 거주조건이 일률적이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의 경우 총 3층 중 2층을 네명에서 공유하였습니다. 2명은 작은 개인실을, 나머지 2명은 보다 큰방을 공유하였습니다. 2층에는 하숙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별개의 욕실이 있었습니다. 개인실을 사용한 것은 좋았지만, 트렁크를 바닥에 놓으면 딱 찰 정도로 방이 좁아 휴식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느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카데미 참석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좋은 조건도 있었고, 불편한 조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넓은 전체를 혼자서 사용했다고 하였고, 3인에서 방을 공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Legal Lodging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숙박 조건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등록을 하며 Legal Lodging 신청을 하면 사무국에서 Legal Lodging 서비스 제공자와 매칭을 해주고 예약 진행을 위한 이메일을 알려줍니다. 저도 예약을 하기 전에 이메일로 하숙하게 되는 조건, 지내게 될 방에 사진 등을 물어봤지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를 하여서 스스로 숙소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호텔, 에어비앤비, Student Housing 등 다양한 선택지와 비교하여 선택을 하시면 보다 편안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날씨와 교통

하숙에 도착한 첫날 하숙집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날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겨울날씨는 딱 런던 같다.” 여름의 헤이그는 정말 아름답고 쾌적하다고 들었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아카데미 참가자들도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니고, 아카데미가 끝난 이후에는 근처 해변에 가서 파티를 하고, 대체로 공부에 싫증이 날 정도의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다행히도” 겨울의 헤이그에서는 그러한 우려는 없었습니다.

총 3주 동안의 프로그램 중에 맑은 하늘에서 해를 볼 수 있었던 날은 총 5번이 채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꾸리한 젯빛 하늘이 보통이고, 아침에 해가 떴다고 하더라도 금방이면 구름이 찾아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비바람이 정말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의 헤이그에서 우산 혹은 비옷은 상시 휴대하여야 할 물품입니다. 그나마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비바람이 적었다고 현지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겨울 헤이그를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우산뿐만이 아니라 방수가 되는 겂옷과 신발을 꼭 챙겨갈 것 같습니다.

3) 기타

헤이그는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헤이그에 머물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 중 하나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에도 훌륭한 도서관이 있지만 평일에는 비교적 이른 시간인 오후 8시까지 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머물렀던 하숙집은 벽이 얇아 소음이 심하였고 너무 좁아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찾아보다 결국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헤이그에는 Leiden University,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등 여러 대학의 캠퍼스 건물이 있습니다. 특이하였던 것은 대학 도서관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도 등록카드가 필요한 것과는 사뭇 달라 매우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별도의 공부 혹은 업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숙소 근처의 대학도서관을 찾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II.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충족

헤이그 아카데미의 여름 프로그램의 경우 본래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을 따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국제공법을 다루는 3주 프로그램, 국제사법을 다루는 3주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며, 등록 절차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겨울 프로그램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3주의 기간 동안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을 모두 다룬다는 것입니다.

수업은 보통 아침 9시 30분경부터 시작되고, 그전까지 출석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아카데미 첫날에 가면 배지를 수여받는데, 수업이 진행되는 강당 앞의 바코드 기계에 자신의 배지를 입력시키는 것으로 출석확인을 합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3일 이상의 결석 시 아카데미 수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헤이그 아카데미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각 분야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도 게리 본(Gary Born)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국제중재에 관심이 있었기에, 학교 수업을 듣고 대회 등의 활동을 하며 접하였던 ‘낮설지 않음 이름의’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었던 선배들이 부러운 한편, 이번에도 그에 걸맞는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책임연구자이자 ITLOS 재판관을 역임하였던 Rüdiger Wolfrum 교수의 강의를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의 경우 1주 정도의 시간만 강의를 맡았던 것에 비교하여 Wolfrum 교수는 프로그램 전체 일정은 3주 동안 계속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Wolfrum 교수의 강의주제는 국제법의 해석과 발전을 “연대와 공동체 이익(Solidarity and Community Interests)”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국제법의 기본 조약과 원칙들을 주로 다루었지만 이러한 원칙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한 Wolfrum 교수의 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보통 리얼리즘(Realism)을 중시하게 되지만, 리얼리즘에 치우친 해석을 극복하면서 국제법에서 이상 혹은 정당성이 도출되는 기작을 매력적이게 설명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헤이그 아카데미에서의 강의는 국제법을 바라보는 전체적이면서도 대안적인(wholistic and alternative) 관점을 제공해주는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강의는 “국제법, 역사 그리고 문화”를 주제로 한 Paul Borja Casella 교수의 강의였습니다. 국제법의 발전은 문화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사람들의 “바다괴물” 혹은 고래와 같은 거대 생명체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과정이 국가라는

존재를 국제법을 비롯한 법규범으로 제어를 해온 것과 우연적인 유사성을 넘어서는 공통의 유의미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Casella 교수는 “바다괴물”을 제재로 하여 리바이어던의 등장, 법을 통한 제어, 무서움의 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바뀐 고래 등을 하나로 엮어 스토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을 문학의 기술과 관점을 통해 해석하는 것도 훌륭한 통찰을 가져온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헤이그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전반적으로 의미 있었던 배움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큰 틀 혹은 이상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부를 반성해보면, 공부에 치중하면서도 조문과 교과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도 급하다는 이유로 한단계 떨어져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킬 여유를 부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의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공부를 소화하면서도 자신의 의견과 생각으로 독자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법 등의 법학 전반을 공부를 하면서 잊지말아야 할 자세를 배웠는 등 많은 것을 배운 의미 있는 세미들이었습니다. 다만 강의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30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하나의 강당에 앉아 수강하는 대형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후에 진행되는 교수별 세미나를 수강하면 많은 부분이 채워질 수 있겠지만, 기관 방문이나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외에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림 3 Wolfrum 교수 강연



그림 2 Casella 교수 강연

IV. 과외활동



ICC에서 정창호 재판관님, 연수나오신 판사님들과 외교부 사무관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카데미 수료를 위한 필수 강의는 오전에만 이루어집니다. 오후에는 날에 따라 교수님별 세미나, 국제법 관련 기관 방문, 주 헤이그 대사관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의 경우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대사관은 선착순에 따른 신청으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아카데미에 참석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프로그램에는 유민펠로우로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석한 사람이 저 혼자여서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헤이그에 도착해서 좋은 분을 많이 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법원 연수로 판사님들도 여러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ICC에 방문하여 정창호 재판관님도 뵙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부터 법원에서 헤이그 아카데미로의 연수 지원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에 첫 주가 거의 지날 때가 돼서야 로비에서 두리번거리다 한국에서 오신 다른 분들께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헤이그 아카데미를 참석하시는 유민펠로우분들께서는 한국 가기 전에 연락이 닿거나 헤이그 아카데미 중 이른 시기에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V. 마치며

유민펠로우로서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된 것은 2019년에 맞이한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헤이그라는 타지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많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홍진기법률연구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후의 유민펠로우 분들도 좋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